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재외동포청 축 인천 설치 확정!
배포일자		2023년 5월 15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 자	• 자치행정팀장 조성훈 ☎ 440-2421 • 담당자 신미정 ☎ 440-242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원로, 인천 내항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성공 지지

- 시민원로회의, 내항상상플랫폼 등 방문해 프로젝트 성공에 조언 -
- “문화·관광·산업 융합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시켜 달라” 당부 -

인천지역의 원로들이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의 뜻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15일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의장 심정구) 위원 약 35명이 인천 내항과 상상플랫폼, 월미공원 등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이와 관련한 자문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원로회의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시정과 현안 사업 등에 각계 원로들의 경험과 식견을 자문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50명의 원로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에는 재외동포청 인천 설립과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지했다.

심정구 의장은 “인천 내항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이자 무한한 미래 동력을 갖춘 곳으로 지금이야 말로 내항의 가치 재창조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최적기”라며, “인천 내항과 원도심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140년 개항의 역사를 가진 내항과 원도심이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원로분들의 많은 조언과 자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으로 인천은 750만 재외동포를 포함해 1000만 시민을 품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인천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 사진은 13시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